

관가정과 향단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사회·문화 및 조영자의 의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Gwangajung
and Hyangdan

- Focused on society·culture and consciousness of an architect -

조 우 용* 이 석 권**
Cho, Woo-Yong Lee, Seok-Gweon

Abstract

The special character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has been formed suitably correspond with the purpose of usage and function, which was influenced with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natural, social, physical, cultural and thoughtful. There was some differences in building placement and space composition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 such as climate, customs, and a gap of convention (long-established custom) and one's social position system and custom character of family. However, the essential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re nicely contain the era's architectural character. But these characters are developed or extinct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factors.

This paper is looking for the elements that formed social·cultural element and background architect's thought. And,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there are looking for Occupation.

A traditional architecture had been formed correspond with the purpose of usage and function, which was influenced with physical nature environment elements such as regional character, climate, customs and social·cultural environment elements such as government, economy, society, culture and thoughtful elements.

키워드 : 한국전통주거, 조영지, 관가정, 향단

Keywords : *korean traditional housing, architect, gwangajung, hyangda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 주거건축의 특성은 음양오행사상, 풍수지리사상, 천문사상 등 동양사상의 요인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시대의 인문 사회적 환경요인 및 지리적 여건, 기후, 풍토, 등 물리적 자연환경 요인 등에 적용하면서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회상을 총체적으로 함축시켜 표출된 속성을 지니

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의 속성은 시대의 흐름에 변화하는 제반 환경요인에 따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특성이 변환되어 성장발전하거나 소멸되기도 하면서 시대상을 내포하고 있다.

거주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택은 사회구조와 생활 관습의 변화에 따라 형식을 달리하는 변화가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5·16세기 상류 주거의 공간구조중 사회·문화적 요인과 조영자의 사상적 배경으로 인하여 형성되어진 인자를 찾아보고,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 청운종합건설(주) 실장, 공학석사

** 강원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지금까지의 조선후기 주택에 대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연구에 비해서 조선 전기 주택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질적·양적 빈곤으로 인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 연구의 물적 자료가 되는 주택구조가 극소수일 뿐 아니라 이것마저 오랜 기간 유지·보수되는 과정에서 많이 변형되고, 주요 건물들이 없어져서 복원적 연구를 선행하지 않고, 당시의 주택 배치 및 평면구성, 구조 등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다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써 문헌자료와 답사를 중심으로 현존하는 15·16세기의 주택 중 비교적 보존이 잘되어있는 양동마을의 주거 중 관가정과 향단을 대상으로 공간구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조선시대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사례의 조영자를 분석하여 이러한 배경이 주거의 공간구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주거공간은 모든 건축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고 또 이들 건축공간은 모든 정치, 사상, 생활감정 등의 집약된 표현체로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상류주거를 대상으로 삼은 배경은 첫째, 서민주거와 달리 상류주거는 양식이 갖추어진 건축으로서 구체적인 건축의식에 의하여 세워진 조율된 형태이고, 또한 한 계층의 주거 양식은 계층적, 개별적 특성이 있는 반면에 전체주거와 문화의 보편적 성질도 포함하기 때문이며, 둘째, 시기적으로 15세기에서 16세기의 주거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 시기 상류주거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가옥

가옥명	건립연대	문화재시설	조영자	비고
관가정	1514년	보물 442호	손중돈	일명 우재 선생 고택
향단	1540년	보물 412호	이언적	

2. 조선시대 초 사회·문화적 배경

2.1 정치·사회제도

1392년 이성계에 의하여 개국된 조선국(朝鮮國)은 고려와 동일한 전제군주국가(專制君主國家)였다. 이렇게 세워진 조선초의 정치 기구나 사회 신분 제도가 조선시대의 주택 건축에 미친 영향은 막대한바, 조선시대의 한양천도와 더불어 이루어진

가대(家垔)의 제한이 이루어졌고, 후에는 간수(間數)만 제한하던 것을 부재 크기의 제한도 하게 된다. 또한 세종11년에 나타난 단청(丹青)금지가 효시가 되어 장식적인 제한도 두었다[1].

2.2 송유배불정책(崇儒排佛政策)

유교를 정교(政敎)의 최고 원리로 한 결과 국민 정신의 이상이 되고 조선숭배(祖先崇拜)가 민간신앙의 핵심이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사회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그것도 가부장적인 가족이었으며, 대가족제도였다.

이러한 대가족제도는 여러 세대가 같은 주택에 거주하게 되며, 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주택 규모가 자연 커지게 되었다.

더불어, 동족일문(同族一門)이 집단 혼란을 형성한 경제적 자위적인 상부상조의 협동체로서 대가족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주택 건축의 배치 계획이나 마을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송유사상이 미친 또 하나의 영향은 주택 건축에 나타난 가묘제(家廟制)이다. 가묘는 고려 말 정몽주가 향교를 신설하고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가묘를 세우게 한 데서 비롯되어 조선 초기 가묘제를 권장하여 점차 일반화되었고 별도로 사당을 건축하고 신위(神位)를 모시게 되었다.

송유정책의 또 하나의 특색은 남녀의 엄격한 구별이었고, 이 또한 조선시대 주택 건축에 체의 분화와 같은 영향을 주었다[1].

2.3 음양오행설(陰陽五行設), 풍수(風水)·도참사상(圖讖思想)

음양이란 -와 +의, 두 개의 상반된 성질의 대립이며 이들이 상호 의존의 관계로 전개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들 음과 양은 서로 순환 조화하여 우주와 인생의 생성 발전을 이룩한다고 한다.

다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천(天)에 있어서는

1) 안악 3호 고분의 동측실에 방앗간, 주방, 고깃간, 차고, 우사등 주택의 부속건물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어 이미 고구려시대에 기능에 의한 체의 분화를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체의 분화를 단순히 유교의 남녀구분에 의한 체의 분화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정약용은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사랑을 집결에 가로 지른 문간방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발전하면서 오늘날 볼 수 있는 사랑채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림(士林)등의 향촌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으로 사랑채의 분화가 있었을 것이고. 중가의 시체에 많은 인원이 참례하게 되면서 큰 공간이 필요로 해서 더 체의 분화가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5기(五氣)가 유행하고 지(地)에 있어서는 민지(民地)를 행용(行用)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5기란 우주에 산포된 만물에 형을 부여하는 뜻이므로 혹은 원소(元素)라고도 풀이되고, 또 민지를 행용한다는 말은 사람 생활에 필요한 5자(五者)를 일컫게 된다는 뜻이다[1].

위의 음양오행설이 뒷받침이 되어, 다시 조선시대의 주택 구성에 큰 영향을 준 것은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이다.

풍수지리설의 본질은 토지는 만물을 생육하는 생명력 또는 생활력이 있는바 이것이 토지가 갖고 있는 일종의 기(氣)라는 것이다. 풍수지리설은 소박한 지모적 신앙(地母의信仰)과 음양오행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지하의 생기가 순환하는 통로가 지맥이고, 생기가 가장 집중되는 곳이 바로 혈(穴)인바 이곳에 묘지나 택지를 정하면 이 생기를 받아들여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것이다.

도참은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설(說)이다.

풍수 도참사상은 조선시대의 주택 건축에 있어, 그 택지의 선정, 방의 배치 등에 큰 영향을 주었고, 한걸음 나아가 마을의 구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왔다.

3. 관가정(觀稼亭)과 향단(香壇)의 조영(造營) 배경 분석

3.1 16세기 사회상과 양동마을의 역사적 고찰

16세기 조선조 사회 일반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사람의 정치적 역량증대와 관계진출로 유교적 윤리와 예학이 보급·확대되어 나갔으며, 사회적으로는 서류부가의 혼속 등이 유교사회의 확립과 더불어 사라져 가면서 가족 구조가 재편되어 유교적인 종법제 확립, 양자제의 보편화 등이 시작되었다는데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가사규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완비되어 갔으며 [2], 가례서(家例書) 저술 등에 따라 유교적인 관념과 생활내용이 사대부 주거 속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조영의 기본적인 틀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관가정과 향단 역시 이러한 유교사회로 이행하는 사회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사대부의 관념이 조영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동(良洞)의 주인공인 경주(慶州) 손씨(孫氏)와 여주(驪州) 이씨(李氏)는 일정한 역정을 밟아 성장해 왔다. 즉 손씨는 본래 경주부의 토성리족에서 사족화의 길을 걸으면서 타읍으로 이주하였고, 다시 상경 종사하다가 입학조인 손소(孫昭)가 처가를 따라 이 마을에 정착한 후 곧 부자대에 공신과 고관의 반열에 들게 됨으로서 마침내 후손들은 경상도 지방을 대표하는 '도반(道班)'으로 성장하였다. 이씨는 본래 경기도 여주의 토성리족에서 상경중

사 하였다가 여말의 왕조교체에 강항 또는 외항을 따라 영일지방에 낙남한 것 같으며, 15세기에 처가를 따라 이 마을에 이주하게 되고 손씨 외손인 이언적이 학문과 사환을 겸비하여 동방오현의 한 분으로서 사후에 '종묘배정(宗廟配享)'(明宗)과 '문묘종사(文廟從祀)'라는 인신으로서 또는 학자로서 최고의 영예를 향유한데서 그 후예들은 일국의 대표적 양반인 '국반(國班)'으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손·이 양가문은 조선왕조 양반사회의 진전에 따라 양동을 근거로 세력을 사방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가세·족세의 번창과 활발한 지역개발로 인해 사회·경제적 기반은 더욱 다져져 갔으며, 세력권은 안강현 일원을 중심으로 경주부의 임내인 기계·신광현과 죽장·생법·북안·곡부곡 및 경주부 관할 소현인 흥해·영일현 지역까지 퍼져 나갔다. 특히 그들은 옥산·서악·동강·서원을 중심으로 경주권의 유림을 대표하여 영남의 열읍교원 세력과 연합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조선 후기 서인 내지 노론정권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야당인 남인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활발한 정치·사회적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3].

이와 더불어 양동 손·이 양성의 재산증식 과정을 보면 첫째, 부·모·처변으로부터 전래되는, 즉 상속과 분배 및 기타 친척으로부터 수증하는 경우, 둘째, 새 터전을 잡아 정착하는 즉 '복거(卜居)'와 개간에 의한 새 가사와 전답의 확보, 셋째, 이러한 자산의 기반 위에서 재주가 새로 구매하거나 증식하는 경우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3].

양동 손·이 양성은 최초의 기가에서 명문으로 성장하는 데는 일정한 과정, 즉 재지품관으로서 치산리제에 밝아 일정한 부를 축적한 바탕 위에서 자체를 교육시켜 사마·문과를 거쳐 사환(仕宦)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밟았다.

위와 같은 내용이 양동에서 손·이 양성이 누린 경제력과 사회적 지배의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막대한 경제력은 주거건축에서 중요한 물질 토대였을 것이며, 교육을 통한 성리학적 사유와 사대부적 소양의 축적으로 유교적 관념 또한 주거 조영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관가정과 향단의 경우, 조영시기가 이러한 경제력 확장과 자체교육으로 손·이 양성이 양동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해 가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례나 가사규제 등에 따른 가시적 규제 뿐만 아니라 사대부적인 이상을 주거에서 충분히 구현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배치계획에 있어서는 연계, 순응, 소통의 개념을 통해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대지 전체의 공간배치계획에 있어서는 기존의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유기적 배치를 통해 기존의 지질, 지형 및 스카

이라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에서 자연으로의 점진적 변화를 이루어 도시 경관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보행로를 따라 구성되는 테마가 있는 마당을 배치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간을 조합하여 구성하고자 하였다.

3.2 손중돈(1463년 세조9년~1529년 중종24년)

조선 전기의 문신(文臣). 본관은 경주(慶州). 자(子)는 대발(大發), 호(號)는 우재(愚齋). 계천군 소(昭)의 아들이며, 김종직의 문인이다. 1482년(성종 13년)사마시에 합격하고 1489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예문관봉교를 거쳐 여러 청환직을 역임하였다. 1497년(연산군 3년) 양산군수, 이어 사예·사복시정으로서 간관들이 거의 다 쫓겨날 때 파직당하였다. 1506년 중종반정 직후에 상주목사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어 1509년(중종 4년)에는 표리(表裡) 1습을 하사받고 좌승지로 승진하였다. 이어 공조(工曹)·예조참판(禮曹參判)을 역임하다가 1517년에는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뒤에 공조판서·이조판서·세자시강원빈객을 지낸 후 도승지를 세 번, 대사간을 네 번 지냈으며, 경상도·전라도·충청도·함경도의 관찰사를 지내고, 우참찬에 이르렀다. 중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경주의 동강서원, 상주의 속수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경절(景節)이다[4].

“경제는 서울 남산의 도봉아래에 있다. 선생이 중종9년 갑술에 송길의 정승됨을 반대하여 소도 울리고 계도 울렸으나 끝내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드디어 사직서를 내고 고향인 경주 양좌촌에 돌아와 관가정을 건축하여 있다가 다시 기용됐다. 중종14년 기묘사화 이후로 여러번 병을 칭탁하여 관을 물러나오려 하였으나 결국 윤허를 얻지 못하고 남산밑에 셋집을 얻어 거처했다. 그 집 처마 밑에 크고 둥근 돌이 있어 심히 기이하고 옛 멋이 있는지라 선생이 이름하여 객거암(客居岩)이라 했다.”[5]

위 글은 관가정 건립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1514년(중종 9년)에 사직서를 내고 양동마을에 돌아와 관가정을 조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관가정 건립후 바로 기용되어 사망할 때까지 서울에서 기거하게 된다. 결국 손중돈은 관가정 건립후 1년도 되지 않아 관직생활을 위해 양동마을을 떠나서 있게 되는 것이다.

관가정이 비록 월성손씨의 대종가로써 400여 년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조영당시에는 살림집의 의미보다는 정자쪽이 가깝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는 집안구조에서 보여진다.

첫째는 현재 부엌으로 보여지는 곳이 안방과 떨어져 있고, 부엌이라고 생각할 어떤 것이 없다[2].

두 번째는 사랑채 옆 행랑으로 보여지는 것이 노비기거를 위했다기보다는 손님방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가장(家狀)³⁾-공은 남양홍씨 부사맹 홍선의 따남에게 초취하여 일남삼녀를 낳으니 아들 경은 오랜 병으로 집에 있다가 부고를 들은 십일만에 죽었다. 딸따님은 참봉 김말손에게 시집가고, 둘째는 장사랑 조국량에게, 셋째는 승사랑 정호에게 시집갔다. 화순최씨 진사 한남의 따남에게 후취하여 이남일녀를 낳았으나 다 요사했다. 함안 김씨 정국공신 이조판서 함원군 선의 따남에게 후취하여 이남을 낳으니 영이요, 장이다. 나는 공에게 덕업의 성대함을 친히 보고 깊게 아는 고로 그 뜻과 행실의 대개와 벼슬 지낸 차례를 삼가 추려내어 말할 줄 아는 군자들이 고중하고 믿어 주기를 기다리는 바이다.”[5]

우재는 일남삼녀를 둔 것으로 전해지는 데 아들이 병으로 죽어 아들이 없는 관계로 회제를 받아들여 귀히 키운 것으로 추측 조사된다.

3.3 이언적(1491년 성종22년~1553년 명종8년)

조선중기의 성리학자로서 본관은 여주(麗州). 자(子)는 복고(復古), 호(號)는 회재(晦齋)⁴⁾[4]. 자계용. 참군 수희의 손자로, 생원 번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경주손씨로 계천군 소의 딸이다. 초명은 적이었으나 중종의 명으로 언(彦)자를 더하였다.

이언적은 조선조 유학, 곧 성리학의 정립에 선구적인 인물로서 유학의 방향과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그것은 주희의 주리론적 입장을 정통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뚜렷하게 계승받은 것이 아니요 독자적으로 학문을 수립하였다.

이언적은 성균관 유생인 이번의 아들로 외가인 경주 양좌동⁵⁾ 서백당에서 출생했다. 당시 양좌동은 경주 손씨들의 동네였으며 이번은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다. 이번의 학문적 정치적 행적은 그다지 대단한 것이 없었지만, 외할아버지 손소는 나라의 공신으로 정치적 명성은 물론 막대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외삼촌인 우재 손중돈은 영남학

2) 김봉렬 교수는 안방 밑을 부엌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여강세고(驪江世稿)에서 발췌
4) 그의 호를 회재라 한 것은 회암(晦菴:주희의 호)의 학문을 따른다는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라 전해진다.
5) 양동민속마을로 알려진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의 옛 이름

파를 주도한 이름난 성리학자이며, 고위관직을 수 차례 역임한 인물이었다⁶⁾[6].

10세 때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 소년 이언적을 거두어 준 것은 바로 외삼촌 손중돈이었다. 우재가 양산, 김해, 상주 등 외지에서 관직생활을 할 때, 이언적은 그를 따라다니며 학문적 인간적 가르침을 받았다. 이언적 평생의 유일한 스승은 오로지 손중돈이었다.

23세 때 과거에 급제, 고향인 경주향교의 교관으로 일하게 되면서부터 지역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정통 성리학의 수호자로 각광받은 청년 회재의 관직생활은 그다지 화려하지는 못했다. 제도권의 실세들은 그이 원리주의적 깨끗함을 거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경상도 어사나 밀양부사 등 고향 주변의 외직에 있거나, 주로 사헌부나 사간원 등의 언론직에 종사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순탄한 벼슬살이가 최초로 좌절할 때는 40세 되던 해였다. 당시 실력자인 김안로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끝내 관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낙향한 것이다. 김안로가 버티고 있는 한, 재등용 될 희망이 없는 그는 안강의 자옥산 계곡에 독락당을 경영하며 기약없는 은둔생활을 시작한다.

드디어 47세 때, 7년 간의 은둔생활 끝에 회재는 다시 부름을 받고 독락당을 떠나게 된다. 은둔생활을 통해 넓고 원숙해진 회재의 인품을 정계의 핵심들도 무시 못하게 되어, 그의 벼슬은 승승장구의정부 좌찬성까지 이르게 된다. 특히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53세 때 고향 본가에 무침당을 짓고 동생을 위해 향단을 신축하여, 독락당과 더불어 그의 건축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세력기반이 없는 시골출신의 선비는 정권의 이용물이었을 뿐이다. 을사사화와 연계되어 윤씨일가에게 이용된 것을 후회하면서 눈 밖에 나게 되었고, 57세 때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평안도 오지 강제로 유배되고 만다. 6년 간의 유배 끝에 1553년 숨을 거두어, 정치가로서는 불행한 삶을 마감했다.

4. 조영자에 의한 관가정과 향단의 공간구조 분석

4.1 관가정 (일명 우재 선생 고택, 보물442호, 1480년대 건립)

손중돈은 주로 외지에서 관직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관가정 건립 당시 서울의 남산 밑에 객거암(客居岩)이라는 집을 짓고 생활을 했고, 임

6) 이언적의 가문이 양좌동에 내거한 동기는 전적으로 처가를 따라온 것으로, 원래 경기도 여주에서 남하하여 조부는 경상도 연일에서 출생한 것으로 전한다.

종도 서울에서 맞이했다.

관가정은 손중돈이 관직을 그만 두고 양동에 돌아와서 지은 집으로서 오랜 관직 생활로 인해 쉬고 싶은 마음으로 관가정을 조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조영은 사랑채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랑과 사랑은 동쪽에 위치한다고 하는 가례의 내용과 틀린 것으로 좋은 안대를 잡아 조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관가정의 평면을 보면 논리적인 규범을 따라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규칙적인 격자체계나 좌우가 거의 대칭인 것이 그것이다.

관가정이 후에 손씨의 대종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조영 당시 살림집을 목적으로 지은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안방과 떨어져 있는 부엌이나 당시 손중돈의 재력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살림집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남는다.

국역 양민공 집에 관가정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중략- “경절공 휘 중돈이 성주산 서쪽 안락천 위에 관가정을 지어 사제로 하고, 제자 유곡공 휘 계돈이 선생의 본제를 지키다. 그 후 중종22년 경절공이 봉작을 받았으며, 선생을 봉사하고, 부조묘를 관가정 동쪽에 세워” -중략-[7]

부조묘라고 하는 것은 불천위로 제수된 조상 부부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사당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불천위 사당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1514년 관가정 건립 후 아버지 손소를 봉안하면서 사당을 세운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사회는 가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기였고, 손중돈은 오랜 관직활동을 한사람으로서 성리학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 관가정 조영때부터 사당이 같이 조영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사회상으로는 주거에서 사당의 배치가 중요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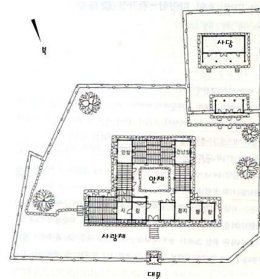


그림 1 관가정 배치도

이 집 이름은 '농사짓는 풍경을 보는 정자'란 뜻이다. 큰 향나무가 있어서 향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처럼 관가정도 관념적인 이름이 아닌 전원적인 냄새가 나는 이름이다. 관가정의 안채에서는 중문을 통해 앞산만이 선택된 경관으로 들어오지만, 사랑채에서는 앞산은 경관의 한 요소 일뿐, 아래로 전개된 들과 강의 풍경이 잘 펼쳐진다.

관가정은 명문집안의 대종가 치고는 소규모며 단순하게 구성돼 있다. ㄷ자형 몸체에 전면 좌우로 날개를 뻗어 사랑채와 행랑채로 삼았다. 그 동쪽 뒤에 독립된 사당을 둔 것이 전부다. 다른 대가와 같이 담장도 없고, 명확히 구획된 외부공간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간적인 변화가 무쌍하다거나 중첩된 형태적 아름다움이 있는 집은 아니다. 평면도만 본다면, 한국집으로는 드물게도 좌우가 거의 대칭인 형상이며, 마루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면적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기능적이다.

평면구성만 보아도 이 집은 논리적인 규범을 따라 계획됐음을 알 수 있다. 규칙적인 격자체계를 따라 기둥을 세웠고, 좌우 두 칸씩 날개를 달았다. 전면 날개부와 뒤의 안채부가 만나는 부분의 한 칸씩을 각각 부엌과 마루로 비워서, 비록 구조체는 한 몸이지만 공간적으로는 ㄷ자 안채와 一자 날개채로 구분하고 있다. 안마당에 면한 몸체는 모퉁이 부분만 온돌방을 놓고, 마당의 3면 방향에는 모두 마루를 깔았다. 북쪽 마루는 넓게 개방하여 안대청으로, 동쪽마루는 안방에 딸린 작은 대청으로, 서쪽마루는 편벽을 막아 광으로 사용했다. 네모난 마당의 코너를 채우고 모서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안채를 완성했다. 안마당의 모서리를 비움으로써, 작은 안마당의 공간감은 건물 내부로 확장되어 '비어 있음'의 공간감의 극치를 이룬다[8].



그림 2 관가정 진입부분



그림 3 관가정 전경



그림 4 관가정 사랑채



그림 5 관가정 안채에서 본 안마당



그림 6 관가정 사당



그림 7 관가정 사랑채에서 본 전경

4.2 향단(보물 412호, 1540년대 건립)

독락당에서 5년간의 은둔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관직에 복귀한 이언적은 경상감사 의정부좌찬성 등의 고위직을 역임하였다. 경상감사로 재직하면서 그는 양동에 이씨종가에는 무첨당을 지었고, 동생 이언팔에게는 향단을 지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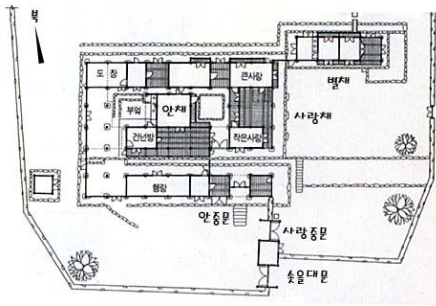


그림 8 향단 배치도

향단은 그 터잡기, 좌향 정하기, 규모와 건축적 개념의 설정에 이르기까지 관가정과 대립적이다. 서쪽의 관가정에 대해 상등성이 동쪽을 차지했으며, 관가정의 안대와는 135도 틀어서 다른 안대를 택했고, 규모는 관가정의 두 배를 넘는다. 향단이 서기 이전, 적어도 50년 전부터 있었던 손씨 대종가 관가정에 대응하여, 이씨 파종가를 이처럼 돌출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이언적의 특별한 의도로 보인다. 이는 손씨들이 주도하는 양동에 자신과 가문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건축적 과시라 여겨진다.

향단은 양동에서 눈에 잘 띄는 건물이다. 이 또한 관가정과 대립적이다.

향단은 경사지를 두 개의 단으로 나누어 윗단에는 안채와 사랑채를 배치하고, 입구 쪽 아랫단에는 긴 행랑채를 배열했다. 두 건물 사이에는 거의 한 층에 가깝게 높이차가 난다. 이 높이차에도 불구하고

고 바로 붙여버린 본채와 행랑채로 인해 안대청에서 보이는 것은 행랑채 지붕과 빈 하늘 뿐이다. 또 머느리가 기거하는 건넌방은 부엌마당으로만 통하게 돼있고, 안방과 붙어있어서 시어머니의 감시들을 감수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집의 머느리는 자유로운 출입은 불가능하고, 쥐죽은 듯이 건넌방에만 파묻혀 부엌의 하인들이나 지휘하고, 틈나면 안대청에 앉아 하늘이나 쳐다볼 뿐이다. 관가정은 외부적으로는 폐쇄적이고 소박하지만, 내적으로는 개방적이면서 대단한 경관을 끌어들인다. 반대로 향단은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내적으로는 갑갑하고 폐쇄적이다.

향단의 안마당과 부엌마당에서 보여지는 이중성 ① 과시적인 사랑채와 은폐된 안채의 형태적 이중성, ② 온 마을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채와 지붕만 바라보는 안채의 경관적 이중성)은 이 집의 건축적 개념이다[8].

김봉렬 교수는 “관가정이 유교적 질제와 엄격함을 근거로 한다면, 향단은 건축가 개인의 발산된 개성을 근거로 한다. 이런 점에서 관가정이 합리주의적이라면 향단은 낭만주의적이다.”[8] 라고 관가정과 향단을 비교했다.



그림 9 향단 전경



그림 10 향단 행랑채 전경



그림 11 향단 안채와 사랑채



그림 12 향단 진입부분



그림 13 향단 안채 대청마루



그림 14 향단 사랑채 전경

5. 결론

일반적인 반가의 전형적인 공간구조가 조선 초기 혹은 그 이전 시기에 이미 완전한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공간구조는 사회구조의 변천 속에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정착되어 온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거주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택은 사회구조와 생활 관습의 변화에 따라 형식을 달리하는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진행된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의 개국과 한양천도와 더불어 이루어진 가대(家堡)의 제한과 세종 13년에 규모의 제한 규정이 정하여진 가사(家舍)의 제한은 조선 초기에 지어진 각 사례들에 있어서는 잘 지켜진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2) 조선 초 유교의 영향으로 각 주거에서 사당공간, 생활공간, 준비공간이 수직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가정에서 보이는 사당은 손중돈의 아버지 손소를 봉안하면서 세운 것으로 추측이 된다.

3) 조선 초기에 있어 가례의 관혼상제 중 가장 먼저 시행이 된 것은 제례이다. 이 제례의 영향으로 주택에서 사당공간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고, 의식공간인 사당을 중심으로 전이 공간, 준비공간이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의 규모에 비해 큰 안대청은 대종가로 쓰였던 관가정의 경우 수십 명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확보된 제청으로 보인다.

각 사례의 조영자에 의한 영향은 조영자의 관직이나 경제적 배경 등이 주거의 조영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의 같은 시기에 조영된 두 건축물이 너무나 상반되게 지어진 것으로 보아 조영자의 사상적 배경이나 조영자의 의식에 따라 주거의 공간구성이 틀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p.56, p.62, 1996.
- [2] 이호열, *조선전기 주택사 연구*, 영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3] 이수건, *양동의 역사적 고찰*,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pp.16-17, p.45, 1990.
-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웅진출판, p.85, 1991.
- [5] 손중돈·손진규·손병철 역, *국역 우재집*, 동강서원, p.187, p.254, 1982.
- [6]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 출판부, p.420, 1984.
- [7] 손진규·손병철, *국역 양민공집*, 동강서원, p.4, 1982.
- [8] 김봉렬, *시대를 담는 그릇*, 월간 이상건축, p.244, p.254, p.256, 1999.